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 운영

센터 사업 참여자, 노동자 등 160여 명 영화 관람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3.11.26 22:00:54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을 열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4일 롯데시네마 수원에서 '비정규직 여가 지원, 문화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을 열었다.

프로그램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소개, 2023년 센터 사업 성과 소개영상 상영, 수원시 노동정책 홍보, 영화 '서울의 봄' 관람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사업 참여자, 수원 소재 사업장 노동자와 센터 사업 협력 기관·비정규직센터 직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여가 생활을 지원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